

새 앨범 'BE'로 빌보드 앨범차트 다섯 번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WOW
BTS, 5번째 빌보드 정상

새 앨범 'BE', 앨범차트 '빌보드200' 1위에 2018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5장 연속 정상 비틀즈 2년 5개월 5장 1위 이어 최단기 2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새로운 '질주'가 시작됐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새 앨범 'BE'로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다섯 번째 정상을 차지했다. 이들이 가는 길이 곧 세계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만큼 이번 신보를 통해 만들어 낼 '새 역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월30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최신 '빌보드200' 차트(12월1일)에서 1위에 올랐다. 2018년 5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로 첫 정상에 오른 이후 2년 6개월 동안 5연속 정상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는 1966년 7월 '에스터데이 앤 투데이'부터 1968년 12월 '화이트 앨범'까지 2년 5개월 동안 5장의 앨범으로 1위를 기록한 영국의 비틀즈 이후 그룹으로서는 최단기간 기록이다. 전체 가수 중에서는 미국 레퍼 퓨처(1년 7개월)의 뒤를 잇는다.

또 '뎀 오브 더 솔'과 함께 한 해 동안 두 앨범으로 해당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유일한 그룹이 됐다. 빌보드는 "BE"는 비영어권 앨범 중 통산 11번째 1위이며, 이 중 5장이 방탄소년단의 앨범"이라고 밝혔다. 'BE'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닐슨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BE'는 발매 첫 주 앨범 판매지수 24만2000점을 기록했다. 이 중 70% 비중이 실물 앨범 판매량 17만7000점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BE'의 실물 앨범이 한 가지 버전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는 점이다. 빌보드는 "구성 방식을 다양화해 선보인 다른 앨범과 달리 'BE'는 디지털 앨범과 '디럭스 에디션'의 한 가지 버전 CD로만 이용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작인 '뎀 오브 더 솔'도 실물 4종, 디지털 1종 등 다섯 가지 에디션이었다.

이제 관심은 이들이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을 통해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만들어낼 기록이다. 만일 1위에 오른다면 한국이 가사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10월 초 '핫100' 1위를 차지했던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13주차에도 14위에 오르는 등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mjoy@donga.com

1위

ABC 공인 유통·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로하스 MVP·소형준 신인왕 ‘상복 터진 KT’

2020 KBO 시상식… 타격 4관왕 로하스 ‘압도적 1위’·19세 괴물 소형준 ‘고졸 신인왕’

로하스 653점 획득 양의지 제쳐 “큰 상 감사” 미국서 영상 메시지 소형준 “한 번뿐인 신인상 영광”



2020시즌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상의 주인공은 모두 KT 위즈에서 나왔다. 창단 첫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이은 또 하나의 행복이다. 멜 로하스 주니어(30)와 소형준(19)이 30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각각 MVP와 신인왕으로 선정됐다.

KBO리그 역사상 한 팀에서 시즌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배출한 사례로는 KT가 6번째다. 198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가 MVP 김성환과 신인왕 이순철을 배출했고, 1993년 삼성 라이온즈(MVP 김성래·신인왕 양준혁)가 그 뒤를 이었다. 2006년에는 한화 이글스 류현진(현 토론토 블루제이스)이 MVP와 신인왕을 독식했고, 2007년에는 두산 베어스가 MVP 다니엘 리오스, 신인왕 임태훈을 배출했다. 이어 2012년 히어로즈가 MVP 박병호와 신인왕 서건창을 배출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로하스는 MVP 투표에서 896점 만점 중 총 653점을 얻어 양의지(NC 다이노스·374점)와 라울 알칸타라(두산 베어스·319점)를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홈런(47개), 타점(135개), 득점(116개), 장타율(0.680)까지 타격 4개 부문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물론 최다 안타 2위(192개), 타율 3위(0.349)의 성적을 올리며 KT의 창단 첫 PS 진출에 기여한 결과다. 11월 18일 미국으로 출국한 로하스를 대신해 수상자로 나선 K T 김강 타격코치는 넘치는 트로피를 손에 쥐느라 진땀을 뻘었다. 영상 메시지로 소감을 대신한 로하스는 “큰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 가족과 팬들께서 응원 해주신 덕분에 수상이 가능했다”며 기



KT 우완투수 소형준이 2020시즌 KBO리그 신인왕을 차지했다. 기자단 투표에서 112표 중 무려 98표의 1위표를 받았다. 30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신인왕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는 소형준. 사진제공 | KBO



KT 멜 로하스 주니어가 30일 열린 KBO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뒤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O

연도	MVP(소속)	신인왕(소속)
2011	윤석민(KIA)	배영섭(삼성)
2012	박병호(백선)	서건창(백선)
2013	박병호(백선)	이재학(NC)
2014	서건창(백선)	박민우(NC)
2015	에릭 테임즈(NC)	구자욱(삼성)
2016	터스틴 니퍼트(두산)	신재영(백선)
2017	양현종(KIA)	이정후(백선)
2018	김재환(두산)	강백호(KT)
2019	조쉬 린드블럼(두산)	정우영(LG)
2020	멜 로하스 주니어(KT)	소형준(KT)

쁨을 숨기지 않았다.

신인상의 영예는 소형준에게 돌아갔다. 112명의 투표인단으로부터 1위표 98표, 2위표 7표를 받아 총 511점(560점 만점)의 압도적 점수로 생애 한 번뿐인 영광에 입맞춤했다.

유신고를 졸업하고 올해 KT의 1차지명으로 입단한 소형준은 정규시즌 26경기에서 13승6패, 평균자책점(ERA) 3.86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투수 최다승을 따냈다. 8월에는 5경기에서 4승무패, ERA 1.75를 기록하며 순수 고졸신인 최초 KBO리그 월간 MVP의 주인공이 됐고, KT의 창단 첫 PS 경기인 11월 9일 두산과 플레이오프 1차전에 선발등판해 6.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소형준은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게 돼 굉장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관련기사 2면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미 CBS스포츠 “25세·30홈런 타자 김하성, 최대 6년 6000만 달러 계약 가능하다” ▶3면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10년 연속 판매 1위

No.1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 g(500 mg X 60캡슐)

1회분량 당 함유: 열매 0 kcal, 탄수화물 0 g(0%), 단백질 0 g(0%), 지방 0 g(0%), 나트륨 0 mg(0%), 포도당 0 mg(0%), Bz 1.4 mg(100%), 비타민Bz 12 mg(100%), 비타민Bz 2.4 mg(100%), 아연 4.05 mg(58%), 셀레늄 30 μg(55%)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별 이벤트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